

금융감독원장 모두 말씀

2017. 8. 2.

금 용 감 독 원

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1 들어가는 말

- 지난 6.19.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*이 확산되고 있어, 오늘 범 정부차원에서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을 마련·발표하였습니다.

*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 추이

6월4주 0.10% → 7월1주 0.11% → 2주 0.14% → 3주 0.17% → 4주 0.24% → 5주 0.30%

- 금번 방안은 관계부처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응방향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,
-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쏠 금융권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.

2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

(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당부)

- 오늘 발표한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의 핵심은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것으로서,
- 금번 방안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에서도 관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- 특히, 「감독규정」 개정시까지의 과도기 동안에 일선 현장에서 금번 대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출 실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울러, LTV·DTI 적용과 관련한 대책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고,

- 고객들의 문의·상담 급증에 대비하여 철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,

- 일선 창구 등에서 본 대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고객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금융감독원은 오늘 발표된 LTV·DTI 적용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없도록

- 각 금융업권별로 '합동대응팀'을 구성하여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및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예정입니다.

◆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 은행권 합동대응팀(예시)
(구 성) 금감원·은행연합회·은행권 업무 담당자
(운영기간) '17.8.3.(목) ~ 제도 정착시
(주요업무) 질의 대응, 일일동향 보고, 은행 준비상황 점검 등

- 또한, 금번 대책 내용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되는지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,

-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

(가계부채 리스크관리 노력 강화 등)

□ 지난 2~3년 동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

-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제고하고 여신심사관행을 상환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「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」을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.

□ '17.7.26.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말 대비 4.0% 증가(28.5조원)한 735.6조원(잠정)*으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된다고 있으며,

*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
'15년중 +78.2조원 → '16년중 +68.8조원 → '17년중(~7.26.) +28.5조원

- 금융회사들이 年初에 제출한 '가계대출 관리계획'을 점진한 결과, 대체로 연간 '가계대출 관리계획'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.

□ 그러나,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美 금리상승 등 잠재 위험요인들을 감안할 때,

-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.

□ 한편, 오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시행과 함께 현재의 가계부채 관리노력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, 가계부채 증가세는 향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가계부채의 안정화는 무엇보다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어떠한 영업 전략을 선택하고, 어떠한 영업 행태를 보이는가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금융회사가 '시장의 자율성'이라는 명분으로 가계대출 위주의 편중된 영업에만 몰입한다면 그 어떤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
- 금융권 스스로가 가계부채라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향후 어떻게 통제해 나갈 것인지,
- 또한, 저성장 시대에 우리 경제를 위해 금융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, 실효성있는 방안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- 금융감독원도 업계와 함께 각종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
3 맺음말

- 금융시장에 상존하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손무(손자)가 쓴 '손자병법' 구지편(九地篇)에 나오는 '상산사세(常山蛇勢)*'의 자세로
- * 중국의 오악중 하나인 상산에 사는 술연(率然)이라는 머리가 들인 뱀으로부터 유래하였으며, 조직적이고 긴밀하게 연락하여 빈틈이 없는 대응을 일컫는 말
- 감독당국, 금융업계, 유관기관이 '유기적인 공조'와 '호트러짐 없는 움직임'을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.
- 이번에 '주택시장 안정화'를 위한 정책 방향이 정해진 만큼,
- 금융이 건전한 리스크관리의 토대 위에서 자금중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
-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금융협회장, 은행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금융감독원도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- 감사합니다.